

REACH 주간 행사 5월 26-30일 개최

신화학물질관리제도(REACH) 공동추진단은 REACH 사전등록 시행에 앞서 범정부 차원의 <REACH 주간> 행사를 개최한다.

업무 중복과 업계 혼란으로 공동대응을 결정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은 5월2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REACH 대응분위기를 조성·확산하고, 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<REACH 주간>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26일에는 <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 정책포럼>을 개최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현황 및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, 27-28일에 걸쳐 <REACH 엑스포>를 개최하고 관련 세미나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기업을 상대로 1대1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.

29일에는 정부와 화학산업계가 기업의 REACH 대응 필요성 촉구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, 30일에는 독일에서 유럽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REACH 대응 및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현지 기업에 대한 1대1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.

환경부와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<REACH 주간> 행사는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, 특히 사전등록의 쟁점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.

또 국내외 컨설팅가업 및 EU 대리인 등과 기업간의 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EU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·지원할 방침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8/04/19>